

대선잠룡들, '복지' 차별화 경쟁 뜨겁다

박근혜 '한국형 생활복지'·오세훈 '그물망 복지' 손학규 '국민생활 정치'·정동영 '역동적 복지'

2012년 대선 화두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 잠룡들의 경쟁이 조기에 접화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복지가 차기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복지에 대한 철학과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차별화 경쟁을 시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골자로 한 '한국형 생활복지'를 제안하면서 당내에서 복지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박 전 대표 측은 보수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박 전 대표의 지지층을 넓히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립·참여형의 '그물망 복지'를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자, "전면 무상급식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표와 인기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나라당 입장을 확실히 대변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 지사는 경기도의 대표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은 '무한돌봄사업'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고 있다. 가족단위 수요자 중심으로 직장인, 주부, 아이들에게 현장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소신이다.

서민·소외계층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이재오 특임장관은 최근 지역구에서 신(新)주택정책 토론회를 열고 세입자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야권**=개혁·진보 진영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정책을 비판·경계하고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의로운 복지사회, 생활우선 정치,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 공동체 구현 등 분야별 과제를 종합한 '국민생활 우선정치'를 모토로 내걸고 있다. 실사구시를 통해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펴겠다는 포부다. 다만, 손 대표는 당분간 구체적인 정책개발보다는 대어 투쟁을 통해 제1야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에서 건너오면서부터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제시했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복지경쟁은 해당 정책을 선도해온 민주당 입장에서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것"이라며 대선 화두 경쟁에서의 자신감을 피력하고 나섰다. 부유세 신설 및 노인연금 확대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민주당 내에서 복지 화두를 선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도 김대중 정부 시절 복지정책의 기초로 평가되

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을 주도한 정책역량을 바탕으로 '기회의 대한민국'을 복지정책의 주요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기회의 대한민국은 취약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정치뿐 아니라 경제, 문화도 민주화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은 복지정책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善)을 행하는 국가론'을 구상 중이다. 선행국가론은 민간시장에서 정부 역할과 국가공공성을 조화시키는 개념으로 진보적 자유주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6일 오후 눈이 내리는 경기도 수원역광장에서 열린 민주당의 '한나라당 예산안 강행처리 규탄과 MB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구 통합 대상 의원 노심초사

서구 갑·을, 여수 갑·을 거론... 동구도 배제 못해 인구 늘어 분할 지역 벌써부터 물밑 신경전 후끈

2012년 총선이 1년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통합 및 분할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의원들은 구간 경계조정 등을 통해 현행 선거구 유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에는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는 서울 성동구 갑·을, 부산 남구 갑·을, 광주 서구 갑·을, 전남 여수 갑·을, 전북 익산 갑·을 등이다. 여기에 광주 동구도 인구 하한선 붕괴로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근 지역인 북구 갑과의 통합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광주의 경우, 구간 경계조정

으로 통해 현행 8곳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다만 북구 갑의 강기정 의원이 인위적인 선거구 조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선거구 유지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여수도 통합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안정성을 명분으로 갑과 을의 선거구가 유지된 바 있지만 19대 총선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여수 갑의 김성곤 의원 측 관계자는 "정계특위야 이미 선례를 남긴 만큼, 19대 총선에서도 2개의

선거구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라도 지방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구가 늘어 분구가 유력시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나 경기도 파주시는 '무주공산'을 차지하려는 입지자들이 물리면서 벌써부터 뜨거운 물밑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통합은 지역구 의원의 정치 생명이 걸렸다는 점에서 극렬한 반발을 피할 수 없고 선거구 분구도 수도권에 물리면서 '국회의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어차피 선거구 획정은 총선 직전, 정계특위 등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이라며 "다만, 통합 대상지역에서는 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현행 선거구 유지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모든게 부덕의 소치... 신중하겠다" 안상수 대국민사과... 野 "사퇴해야"

한나라당 안상수(사진) 대표가 26일 '자연산' 발언 파문과 관련,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이며, 반성의 시간을 통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성명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당 대표로서 저의 적절치 않은 발언과 실수로 인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지난 며칠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여당 대표로서 모든 일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책임을 느낀다

면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국민은 안 대표가 '반성'이라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사퇴'라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당이 부끄러움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반성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檢 '입법로비' 소환 의원 조만간 전원 기소 검토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한 국회의원 6명을 모두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급주 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일부 의원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4일에는 최규식·강기정(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연합뉴스

민주, 새해부터 테마별 저인망 여론전

야5당 공동집회·민생현장 방문 등 검토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일방처리에 반발, 지난 14일부터 이어온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오는 28일 서울을 끝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인 가운데 새해 투쟁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새해 예산안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여권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장외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연말연시에 한과까지 겹치

면서 여론의 호응이 저조한 상황인 만큼 대규모 규탄집회 및 천막 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테마별로 저인망식 여론전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구체적 투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1~2주에 한 번씩 거점별로 야5당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공동 집회를 여는 동시에 시·군·구 단

위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현안과 관련한 민생현장 방문에 나서 등 저인망식 여론전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각 등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손학규 대표는 26일에도 경기도 수원역 앞에서 '날치기 예산안, MB악법 무효 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뒤 천막을 치고 노숙 투쟁에 계속했다. 손 대표는 1차 순회투쟁이 마감되는 28일 이후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속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취임 100일째인 1월10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진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손학규 대표는 26일에도 경기도 수원역 앞에서 '날치기 예산안, MB악법 무효 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뒤 천막을 치고 노숙 투쟁에 계속했다. 손 대표는 1차 순회투쟁이 마감되는 28일 이후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속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취임 100일째인 1월10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진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애틋한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